

01

# 따뜻: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하루하루  
늘 달라지는 삶

Jul+Aug 2023  
Vol. 225

밤하늘 별빛이  
눈 속으로  
바라보며

어느 날, 우연히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지난날의 고단함을 잊을 정도로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네요.  
혹시 그동안 이유 모를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면,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저 별들이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더 화사하게 바꿔줄지도 모르잖아요.

Jul+Aug 2023 Vol. 225

# Contents



## COVER STORY

무더위를 피해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동네로 캠핑을 떠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낮에는 발만 담가도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밤에는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자연 속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그렇게 누워 유독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니 이만한 호사가 또 있나 싶네요. 이 여름의 행복한 풍경, 상상만하지 말고 직접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표지 일러스트 정아리

- [www.kdhc.co.kr](http://www.kdhc.co.kr)
- [www.youtube.com/c/kdhcmedia](https://www.youtube.com/c/kdhcmedia)
- [blog.naver.com/kdhc2017](https://blog.naver.com/kdhc2017)
- [www.facebook.com/FKDHC](https://www.facebook.com/FKDHC)
- [www.instagram.com/kdhc\\_on](https://www.instagram.com/kdhc_on)

발행일 2023년 8월 11일(통권225호)

등록 1993년 11월 30일

신고번호 성남, 마00027

발행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발행인 정용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 바로가기

# 따뜻:한난 vol.225

2023년 7+8월호 이야기



## SECTION 따뜻한, 마음

**04**  
테마 필치기  
하루하루  
늘 달라지는 삶

**06**  
테마 에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08**  
생각 보태기  
예전과 다르게  
변한 나,  
오히려 좋아

**10**  
특독 양케트  
변하고 싶다면  
날 따라 해 봐요!

## SECTION 뜻깊은, 걸음

**12**  
혁신, 더하기  
임직원 문화규칙으로  
더 높이 도약합니다

**14**  
효율, 늘리기  
에너지효율 플러스  
사업추진으로  
행복 플러스!

**16**  
안전, 곱하기  
정보보안부

**18**  
투명, 높이기  
한눈에 보는  
공직자 행동강령

## SECTION 한번더, 웃음

**20**  
반가운 만남  
천체사진가  
권오철

**24**  
이런 문화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다  
굿즈는 못 참지

**28**  
그림의 위로  
양리 마티스

**30**  
요즘 밥상  
올여름,  
가벼운 보양식  
어때요?  
전복 샐러드

**32**  
에코 트래블  
차 타고 가는  
신선의 섬에서  
여름휴가  
· 군산 선유도

**36**  
콘텐츠 in 에너지  
문어에게서 배운  
인생의 교훈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

## SECTION 난방, 요즈음

**38**  
취미 유발자  
물 만나  
좋은 날

**42**  
여기서 행복  
수원사업소  
고민성 과장 가족

**46**  
듣는 서점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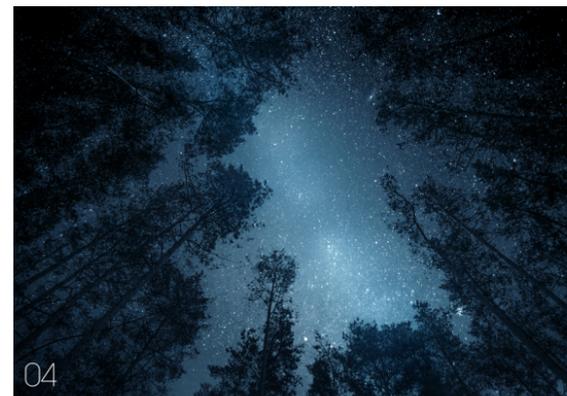
**48**  
함께 시너지  
김해사업소&  
김해지역  
자활센터

**52**  
한난 이벤트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2023 파크콘서트

**53**  
한난 뉴스

**54**  
독자와 함께

**55**  
한난 SNS



04



16



32



38



46

# 하루하루를 달려왔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난 뒤,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요.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것보다는

조금 희미해졌겠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온 당신의 하루하루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휴식이 필요한 지금은 잠깐 쉬를 누려도 괜찮아요.

한 해의 중간까지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해 오롯이 주어진 시간이니깐요.

# 하루하루를 달라지는 삶

달라지는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쉬어보기.

잠깐만 휴대전화를 꺼놓고 걸어보기.

조용한 자연 속으로 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 못하고 온 일들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후회할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껏 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열심히 달리면 되거든요.

이 여름의 쉬이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의 날들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이 더 아름답게 변화길 응원합니다. ●

#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글 김상현 작가

2019년 5월에 카페를 오픈했는데, 운영한지 7개월 만에 코로나19가 들이닥쳤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월 마감을 하고 매출을 볼 때면,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번씩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버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였거든요. 코로나19라는 변수는 우리 삶 자체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문득 그저 '버티기'만 한다는 것은 갑자기 바뀌어버린 세상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겠다는 선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송길영 작가의 책 <그냥 하지 말라>의 한 문장이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변화는 독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고, 내가 알던 믿음과 상식은 언제나 무너질 것이며, 세상과 사회는 속도가 다를 뿐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문장을 마주한 후 들었던 생각은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며 나만의 생각과 고민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거나, 변화를 원망하는 일밖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직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회의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일주일 내 내 비가 왔을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핑계'일 뿐입니다. 전국의 모든 카페가 망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느 카페든 찾아 갈 테니까요. 그렇다면 회의의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이유'를 만드는 것뿐이었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쾌적하며, 인테리어가 예쁜 120평의 공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확한 장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직원들이 친절하고, 친절하 직원들은 매장을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상의 원두로 최고의 커피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점 역시도 명확했습니다. 맛있는 빵이었죠. 공간과 친절에 집중하다보니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빵의 맛이었습니다. 이후 서울,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카페와 빵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상권, 사람들이 줄 서는 곳의 특징, 매장별 빵 맛의 특징부터

해서 잘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사람들이 없는 곳은 왜 안되는지와 같이 수많은 매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맛보며 우리만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후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1.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 2.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 3.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

수백 번의 실패와 수정, 보완을 통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 싶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라는 변수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남동 카페 공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매출 기준 '마포구 상위 1% 카페, 연남동 1등 카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에 올라타고, 우리가 세운 기준을 만족시킬수록 이 기록은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품(베이커리)' 덕분에 잘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런 가넷의 '성공 방정식'에 따르면 성공은 적합한 모든 상태를 곱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적합한A \* 적합한B \* 적합한C \* 적합한D \* 적합한E = 성공

위 방정식에 따르면 아무리 많은 성공 요인이 제대로 갖춰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요인이라도 잘못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카페를 성공으로 연결시키려면 '커피도 맛있어야 하고, 빵도 맛있어야 하고, 위생적이어야 하고, 직원도 친절해야 하며, 인테리어까지 좋아야'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해내고 싶은 모든 일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었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은 잘되다가도 안되기도 하고, 안되다가도 잘되기도 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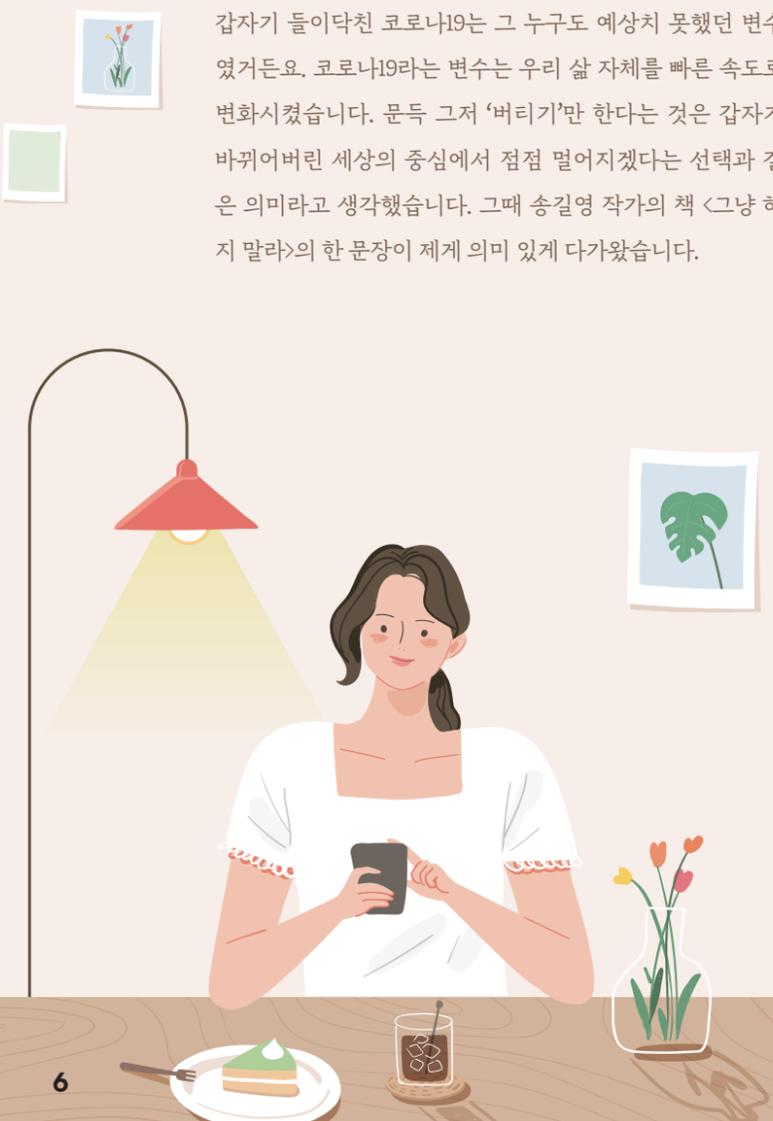
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은 흐름을 탔을 땐 좋은 일들만 다가오는데, 안 좋은 흐름을 탄다고 느끼면 불행한 일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한다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이뤄낼 확률은 희박해집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쩌면 기복은 롤러코스터보다 심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추구하는 가치나 꿈, 목표'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해내야 할 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저의 꿈 중 하나는 '보고 듣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손을 거쳐 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읽게 만든다', '커피와 빵에 진심을 담아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끔 만든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 어설피고, 무지합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정도로 부끄러운 순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 숨겨두기만 한다면, 결과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부딪히면 됩니다. 부딪히고 느꼈던 걸 보완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계속해서 채운다면,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김상현 작가

작가 및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필름출판사와 연남동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등이 있다.



# 예전과 다르게 변한 나, 오히려 좋아!

사람이 태어나서 한결같이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또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변한 자기 모습에 대해 거부감 들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늘 달라지는 삶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따뜻·한나> 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글 편집실



## 독자 김준호 님 운동과 함께 변하는 내 모습



10년 전에 헬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영과 골프를 배우며 취미로 즐기고 있어요. 헬스는 일주일에 5일 정도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헬스장이 쉬는 날에는 동네 약수터에 가서 운동하고 올 정도입니다. 이제 운동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창 시절 30개밖에 못 했던 윗몸 일으키기는 이제 100개를 가볍게 하고, 줄넘기도 300개를 넘게 하는 등 체력이 바뀐 걸 느낍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 독자 최영수 님 아내의 수술이 가져다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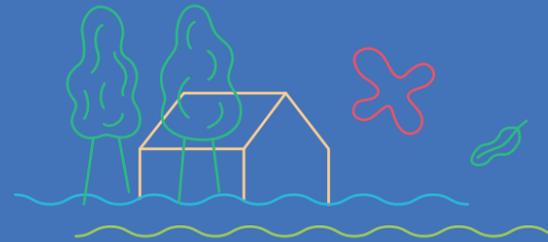


18년이란 긴 시간을 맞벌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아들이 고2 때, 교육 때문에 사직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수술 후에 깨달았어요. '아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어요. 그때부터 제가 참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아내에게 먹이고 싶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내의 소중함을 간절하게 느끼면서,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 독자 전숙원 님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는 요즘에



요즘에는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존감이 워낙 높아서 나의 주장이 옳다 싶으면 고집을 부리고, 뜻한 바를 관철하려고 했거든요. 책을 보고 심신 수련을 했더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가끔 잘난 호랑이 콧수염이 몇 개 뻗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책 속에서 답을 얻고 변하는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 독자 이은영 님 비우는 삶도 좋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그 버릇이 저절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절약 습성이 있어 따라 한 것뿐인데 그런 소릴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 들어오면, 한 개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실천하니,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비우기 잘하는 저를 보며,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독자 김혜옥 님 부모의 마음이란



저는 부모가 되는 순간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면, 부모가 되고 나서는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잠이 많아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났는데, 이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

### 9+10월호 생각 보태기 주제 더불어 산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9+10월호 주제는 '더불어 산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일상에서 더불어 산다고 느꼈던 소중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따뜻·한나>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9월 14일까지

## 변하고 싶다면 날 따라해 봐요!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변화는 필요한 법이죠!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데, 어렵다면 <따뜻:한남> 독자들이 변화를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고, 따라 해 봅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래 리스트를 실천하면서부터 다양한 변화를 맛보고 있다고 하네요.

글 편집실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



### 50% 운동

변화를 다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은 종류도 다양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즐길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 변화도 따라오기도 하고요. '변화를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여러 독자가 운동이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였습니다. 회사 근처 산책길을 걷거나, 만 보 걷기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걷기를 즐기더라고요. 가장 신선한 운동은 클라이밍이었습니다. 집중력도 길러지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운동을 찾는 분들께 추천해 봅니다.

### 20% 자기 계발

살다 보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같은 삶을 살면 도태되기 마련이죠. 변화를 위해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한 독자는 자격증 취득과 글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안성맞춤인 자기 계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한 후 자격증까지 거머쥐면 이만한 보람도 없을 것 같네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막막하다면, 좋아하는 책 필사를 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필사하거나 일기를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도 늘 거예요.



### 15% 물 또는 차 마시기



물은 노폐물을 배출해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면역력 증진 및 피로 해소에도 좋고요. 이렇듯 건강이나 피부 관리에 탁월하다는 이유로 몇몇 독자들은 변화를 위해 물 마시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물 마시기 어렵다면, 차 마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독자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일이 많은데, 차 마시기에 도전하면서부터 커피 마시는 양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 6% 정리 정돈



지금은 종영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단지 정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했을 뿐인데, 집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뀐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아 정리만 잘해도 많은 게 변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청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 정리를 하기 위해 큰마음을 먹어야 한다면, 일단 내 주변부터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책상 위를 정리하고 나면 일의 능률이 올라요"라고 답변한 독자처럼 말이죠. 이 독자는 아침에 책상 위를 정리 정돈한 후 일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업무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내 주변이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세요!

### 5% 칭찬하기



칭찬하기를 실천하는 독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번씩 누구에게라도 칭찬합니다. 주변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칭찬을 통해 밝고, 바른 사람으로 변하는 제 모습이 좋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화가 많아지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세상이 따뜻하게 바뀔 것 같네요.

### 4% 정시 기상, 정시 출근



정해진 시간에 무엇인가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오래도록 지키는 독자도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 정시 기상, 정시 출근을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늘 바쁘게,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 5분이라도 좋아요.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10월호 톡톡 앙케트 주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동호회 사람들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따뜻:한남>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9월 14일까지

# 임직원 문화규칙으로 더 높이 도약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라는 비전과 함께, '혁신·효율·안전·투명'의 경영방침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한난의 조직문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자 임직원 문화규칙을 제정했다. 한난 임직원이 함께 만들고 지켜나갈 문화규칙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1

**문화규칙이란 무엇인가요? 규칙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문화규칙은 공사 조직문화의 큰 방향성을 나타내는 규칙입니다. 아마존, 노키아, 삼성, 메타 등의 국내외 혁신 선도 기업은 기업 및 조직 정체성을 강화하고 업무와 경영 전반의 기준이 되는 경영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난에도 전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행동과 마음가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화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문화규칙이 현업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문화규칙을 제정할 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일상 업무부터 큰 의사결정까지 실제로 기능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제 자신의 업무를 문화규칙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게끔, 계층별 의견수렴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전 직원분들이 매년 1월 정기인사 후 스스로의 업무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사내 플랫폼 및 안전·투명 주관 부서와 협업을 통한 문화규칙 확산 활동도 진행하려고요.

3

**형식적인 시도에 그치지 않는지 걱정돼요.**

문화규칙을 제정하며 가장 고민했던 점인데요. 공사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문화는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해야 변화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한난 임직원 문화규칙은 교훈처럼 강제로 암기하거나 단기간 홍보하고 끝나서는 안되고, 누가 시켜서 강제로 지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복기할 때 바람직하고 유용한 이정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습니다.



4

**문화규칙에 대한 경영개선부의 바람이 있다면요?**

최근 경영위기로 인해 전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한난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규칙'이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한난」 아이디어 부문에서 문화규칙 확산 방안도 공모 중이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이 참여해 주세요. 🍀



## 우리 함께 실천해요! 한난 임직원 문화규칙

한국지역난방공사는 CEO 경영방침인 '혁신', '효율', '안전', '투명', 4개 영역에 걸쳐서, '경영진 워크숍'과 전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른쪽 8가지의 임직원 문화규칙을 선정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혁신

- 혁신은 기본에서 나온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효율

- 우리는 관행적 비효율을 개선한다.
- 우리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된다.

안전

- 안전에서 중요한 것은 대처가 아닌 대비이다.
- 우리는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생활화한다.

투명

- 우리는 언제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팀을 이끈다.
-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진 리더가 된다.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라는 비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문화규칙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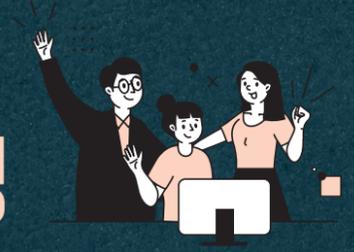


# 에너지효율 플러스 사업추진으로 행복 플러스!

에너지효율 플러스는 범사회적 이슈인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제고를 위한 고유 業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사회공헌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느꼈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글 편집실

## #추진 배경



- 대외 환경** 난방비 상승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비용 부담 가중으로 정부 차원의 '에너지 서민지원 강화' 및 '에너지효율' 강조
- 경영 여건**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제고를 위한 고유 業 연계성이 높은 新 사회공헌사업 추진 필요성 증대

## #추진 목적



-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및 개인 세대 대상 에너지 효율화 시공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 도모
- 에너지 일자리 창출**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활용 및 사회적기업 협업 등을 통한 에너지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효율화 시공, 고효율 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축 도모

# #추진 사업1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원공사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 지원



- 사업 기간** 2023년 7월~2024년 2월
- 대상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 대상** 에너지 사용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화 시공 15개소, 고효율기기(냉난방기기) 50개소 지원
- 대상 선정** 사회복지시설 개별 신청 및 지자체 추천
- 협력 기관** 청주시, 한국에너지재단

# #추진 사업2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소재 취약 계층(개인 세대) 지원



- 사업 기간** 2023년 7월~8월
- 대상 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 지원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개인) 1,000세대
- 지원 내용** 에너지 고효율 기기(냉방기) 지원  
⇒ 임직원 봉사단체인 '행복나눔단'과 함께 추진
- 대상 선정** 성남시청 및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추천
- 협력 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 에너지효율 플러스 NEWS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7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진 경영관리처장,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직원 봉사조직인 '행복나눔단'이 성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후원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성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0가구에 고효율 냉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컨설팅 후 에너지시설 시공(설비·단열 개선 등) 및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

# 개인정보, 다 함께 지킴시다!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정보보안부의 목표는 한결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 내부 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자료 암호화, 접근 제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진 조병우 동영상 최의인



정보시스템처  
정보보안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창욱 대리, 김기석 부장, 강진수 책임

### 정보보안 업무를 하며 거둔 유의미한 성과가 궁금해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 및 새로 구축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정기 보안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를 시행하여 보안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시스템 활용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의적인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중요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보보안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일단 올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과 내부 업무상 취급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

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소홀했던 대면 교육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각종 캠페인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존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많이 변경되었거든요. 업무수행 시 직원들이 혼동 없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범위가 넓은데요. 직장 내 개인정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입사할 때 제출하는 입사지원서, 고용계약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본인 개인에 대해 생성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직장 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남 인사시스템에 등록된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신상 정보, 가족 관계부터 급여 정보, 연차 및 휴가 일정, 근무 기록,

성과 평가 등과 관련된 정보도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건물 출입기록부터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차량 등록 정보 등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남에서 가지고 있는 임직원 개인정보는 모두 적법하게 수집되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본사 인사, 노무 담당자, 지사 관리과 등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는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임직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개인정보 보호 팁을 알려주세요.

최근 우리 공사 시스템은 대부분 OTP(One Time Password)로 로그인하는데요. 이외에 업무상/개인적으로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는 계정 패스워드는 강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길이가 길고 다양한 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포함한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주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모두 ID, 패스워드를 타 사이트와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상한 이메일이나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의 첨부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신중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장 해킹 메일 훈련 결과를 보면,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많은 젊은 직원들의 위장 해킹 메일 열람률이 높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평소에 외부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 정보보안부가 알려주는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 수칙

<p><b>Q</b> 근로자의 가족 개인정보 확인 후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p> <p><b>A</b>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거나 가족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근로자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p>	<p><b>Q</b> 거래처와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줄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p> <p><b>A</b>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인 근로자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p><b>Q</b>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p> <p><b>A</b>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b>Q</b> 퇴직 근로자의 경력 증명을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p> <p><b>A</b>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p>
--	---	---	--



# 한눈에 보는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 공직자 행동강령이다. 적용 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강령이란?

특정 조직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런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 수행 과정 중 당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합니다.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등)
- 제10조(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2005.7.21.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위원회에서 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 규정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행위기준 (2022.6.13.시행)

#### 공정한 직무수행(6개)

- 상급자의 부당 지시 처리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8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3개)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잠수함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유무선 인터넷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2009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난 오로라. 너울거리는 신비한 빛 앞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한바탕 빛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난 뒤 결심한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빛들의 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경이로움을 카메라에 담는 천체사진가가 되기로! 권오철 작가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고, 국내에서 유일한 천체사진가이자 행복한 우주먼지로 살아가는 중이다. 글 박영화 사진 정우철 영상 최의민

## 일생에 꼭 한 번, 오로라! 지상 최고의 경이로움을 만나다

**Q. 밤하늘을 찍는 천체사진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언제부터 밤하늘 촬영을 좋아하셨나요?**

**A.** 어릴 적에는 별레나 새를 쫓아 다녔습니다. 별에 빠진 건 고등학교 때 였죠. 그리고 대학 시절, 천문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따서 가질 수 없으니 사진으로 찍어서 오래 보고 싶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에 다니면서도 취미로 밤하늘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Q.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다가 천체사진가로 직업을 바꾸셨는데요. 삶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찍은 별 사진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낮엔 회사원으로, 밤에는 사진가로 10여 년을 살다가 문득 제가 우주먼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란 하루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주먼지라면 행복한 우주먼지가 되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우주먼지가 될 것인가?', '내가 뭘 할 때 행복할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밤하늘을 찍을 때 행복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전업 천체사진가가 되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체사진가 권오철



밤하늘에 신의 영혼이 춤추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눈 덮인 언덕 위,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초록 빛깔  
오로라가 떴다. 어릴 적 만화에 나오던  
오로라 공주의 이미지처럼,  
극지방의 차가운 밤하늘을 빛으로 물들이는  
오로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상이다.  
그 동네 원주민들은 오로라를  
'신의 영혼'이라 부른다고 한다.

<신의 영혼 오로라> 중

**Q.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작가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A.** 처음에는 그냥 디지털카메라로 밤하늘을 찍었는데,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영상처럼 만드는 타임랩스라는 걸 시도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더군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촬영하니깐 타임랩스도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경이로움을 사진에 담아낼 수 없어서 동영상으로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도, 실제로 봤을 때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밤하늘 전체를 한 번에 찍기 위해서 카메라 여러 대를 연결했어요. 이게 바로 VR이에요. 세계 최초로 오로라 VR 동영상을 찍었고, 과학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Q. '대한민국 유일의 천체사진가'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A.** 별을 촬영하기 시작한 게 1992년이니까 30년이 넘었네요. 직업이 된 건 2010년부터고요. 천체사진은 수요가 워낙 적어서 세계적으로도 전문 천체사진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칠레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을 때 세계 곳곳에서 온 천체사진가 친구들과 번개모임을 가졌는데 그 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인 최초로 NASA에서 운영하는 '오늘의 천체 사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게 별을 촬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훈장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체사진가라는 부담보다는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저서 <신의 영혼 오로라>에서 오로라 폭풍을 만났을 때 표현하신 글들이 인상적입니다.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A.** 오로라는 인간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냥 오로라는 눈물까지는 안 나니까 정확히는 '오로라 폭풍'이 그렇겠네요. 오로라는 밝을수록 빠르게 움직여요. 오로라가 춤을 추다 갑자기 폭발하듯 밝아지는 '오로라 폭풍'이 되면 가슴이 먼저 알게 됩니다. 저절로 비명이 나오고 울음이 터지기도 하죠. 오로라 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지는데, 온 세상이 오로라 빛으로 물들고, 특히 겨울철에 눈이 쌓여 있으면 바닥도 오로라 빛으로 같이 공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로라는 사진으로만 보아도 환상적이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Q. 얼마나 자주, 어디로 오로라 촬영을 위해 가시나요?**

**A.** 지난 3월에 오로라를 촬영하러 캐나다 옐로나이프에 갔었고요. 4월에는 개기일식을 촬영하러 호주, 6월에는 백야를 촬영하러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갔었어요. 9월에 다시 오로라를 촬영하러 갈 계획입니다. 대개 1년에 60일에서 150일 정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Q. 한국지역난방공사 <따뜻:한난> 독자 중 오로라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어느 시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조언해 주세요.**

**A.** 오로라는 11년 주기로 극대기, 극소기가 나뉘어요. 근데 극소기에는 오로라 폭풍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극대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로라 폭풍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극대기에 가야 하는데, 다음번 극대기가 바로 올해부터 3년 정도입니다. 2024년이 피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나 다음 겨울 정도가 가장 좋겠네요. 일단 극지방을 가야 하는데, 극지방을 가기만 하면 오로라는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야 하고, 구름이 없어야 해요.



1 NASA가 선정한 '오늘의 천체사진'  
캐나다 옐로나이프의 오로라 빌리지  
2013.12.  
2 캐나다 옐로나이프의 에노다 로지  
2012.10.

<따뜻 : 한난 >  
독자 여러분  
행복한 우주인리 되세요!  
김기성 2023



문제는 유럽 쪽이 날씨가 정말 안 좋아요. 극지방이 날씨가 좋을 때가 아주 드뭅니다. 아이슬란드, 다들 좋아하시지만 여름철에 가세요. 겨울철은 한 달에 기후통계를 보면, 20일 정도 비가 오거든요. 노르웨이,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바다랑 좀 떨어진 캐나다 북쪽 아니면 알래스카 북쪽, 이런 곳이 날씨가 좋아요. 세계에서 오로라 보기 가장 좋다고 알려진 곳은 캐나다 옐로나이프입니다. 이곳의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가 3월 말, 4월 초예요. 이때는 비행기 값도 가장 싼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캐나다 옐로나이프에 가시면, 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4월 8일에는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있어요.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경이로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A.** 극대기가 지나가고 나면 촬영한 영상들을 모아서 천체투영관 돔 스크린에서 오로라를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도록 영화로 제작해 상영할 계획입니다. 바람이 더 있는데요. 옐로나이프에 천체투영관이 있는 오로라박물관을 만들고 싶고, 국내에도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천체사진 촬영 50주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다 굿즈는 못 참지



## g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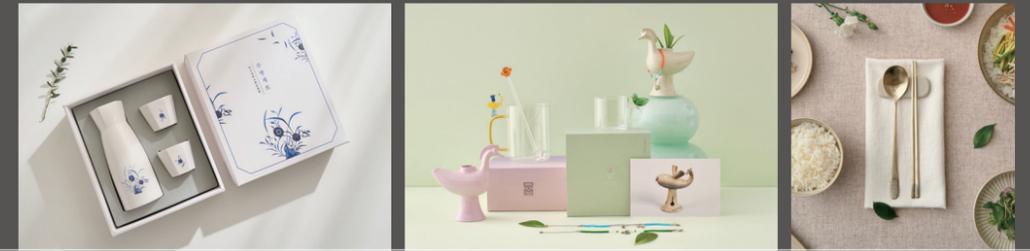
'굿즈'는 상품, 제품이란 뜻을 가진 영어 good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스타나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 그리고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상품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굿즈의 시초는 스타 사진으로 만든 책받침이 아닐까. 80, 90년대 인기 스타들은 모두 책받침에 등장했고, 당시 학생들에게 이런 굿즈는 필수템이었다.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응원봉, 달력, 지갑, 폰케이스, 인형 등 품목이 다양해졌고, 굿즈를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이나 숍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스타의 책받침이라는 예처럼 굿즈는 덕후문화에서 시작되었다. 덕후들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굿즈를 구매하면서 지금의 의미로 통하게 된 것이다. 즉, 굿즈를 소장한다는 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의미다. 그래서 굿즈는 사용보다는 수집의 의미가 더 크다.

굿즈가 사랑받는 시대인 만큼 많은 브랜드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굿즈를 생산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테크엑세서리 브랜드인 케이스티파이의 컬래버가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반가사유상, 고려 비색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 청자 참외모양 병 등 유서 깊은 한국의 유물들을 디자인해 케이스에 담아낸 것. 사람들은 박물관 유물이 우리 일상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이렇듯 굿즈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시회나 뮤지컬 등의 공연을 본 뒤 관련 이미지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굿즈고, 특정 드라마를 좋아해서 관련된 상품, 예를 들어 대본집을 사는 것도 굿즈다. 실링 굿즈 목적으로 제작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생산자도 모르는 사이에 굿즈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그 사람의 얼굴이 담긴 주간지마저 굿즈인 셈이다.



'굿즈' 시대다. 품귀 대란까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굿즈. 소장 욕구 올라갈 만큼 예쁘고 질 좋은 굿즈를 사기 위해 오늘도 지갑을 연다. 굿즈는 못 참지!

글 편집실 사진제공 국립박물관문화재단

star

animation

brand

cartoon characters

유물의 아름다움이 굿즈로 탄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다양한 굿즈를 생산하며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텀블러, 시계, 액세서리 등의 제품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 '반가사유상', 고려 비색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BTS 멤버 RM이 박물관 전시를 관람한 후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구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MZ세대들에게 유행템으로 사랑받게 된 것.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를 구매하려면 뮤지엄샵(www.museumshop.or.kr)을 이용하면 된다.



굿즈로 인해 접어진  
모나미

'모나미153'. 국내 최초의 볼펜이자 모나미의 스테디셀러다. 흰색 육각형 몸체와 심플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 볼펜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모나미153이 여러 기업,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다채로운 디자인의 모나미153을 선보이고 있다. 게다가 필통으로 활용 가능한 틈케이스까지 선물로 증정한다. 그동안 독일 가전 브랜드 브라운, 동국제약 마데카솔, 커피빈코리아, 동화약품 활명수 등과 협업한 굿즈를 꾸준히 출시하면서 MZ세대도 찾는 젊은 브랜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다양한 모나미 굿즈는 모나미몰(www.monamimall.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굿즈계 대스타  
잔망루피

무려 131만 명이다. 가수도 배우도 아닌 잔망루피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수가. 루피는 암컷 비버 캐릭터로, 애니메이션 <뽕뽕뽕 뽀로로>에서 주인공 뽀로로의 친구로 등장하며 알려졌다. 그런데 2019년 한 팬이 루피의 사진을 비웃는 표정으로 합성해 트위터에 올렸고, 그 트윗이 유행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더 이상 뽀로로의 친구가 아닌 당당히 주인공 '잔망루피'가 된 것. 겉으로는 순진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잔망루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속마음과 같아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솔직·당당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잔망루피 캐릭터는 피규어, 스마트폰 케이스, 디저트, 사무용품, 지갑 등 다양한 굿즈로 제작되고 있고, 교보문고 핫트랙스, 백화점 등에 잔망루피 팝업스토어가 생겨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 굿즈  
이디야커피

이디야커피가 산리오캐릭터즈와 함께 제작한 굿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이디야커피 프로모션으로, 콜라보 음료 구매 시 각 캐릭터에 해당하는 스트로우 데코와 랜덤 스티커를 제공하고, 산리오캐릭터즈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스티커세트를 증정했다. 또 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피규어 마그넷 8종과 캐릭터가 그려진 후드타월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디야커피는 굿즈 출시 10일 만에 누적 판매 3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디야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해 다양한 굿즈를 내놓고 있다. 시나모롤, 쿠로미, 마이멜로디, 폼폼푸린 등의 산리오캐릭터즈가 어린 아이부터 30대 이상 여성들까지 전 연령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

# 바다는 하늘이 될 수 있고

# 하늘은 바다가 될 수 있다

가위로 오려내고 붙인 마티스의 컷아웃 시리즈를 볼 때면 이 세상의 많은 풍경 중 내가 담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은 욕심마저 든다. 마티스의 작품은 도려낸 부분도 작품의 일부이며 바다는 하늘이 될 수 있고, 하늘은 바다가 될 수 있으며 물고기는 새가, 구름은 해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 이소영 작가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하늘>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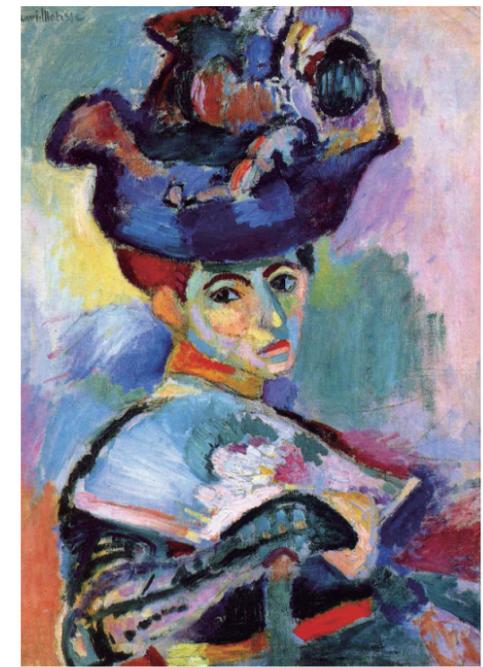
<폴리네시아 하늘>, <폴리네시아 바다> 작품을 보자. 하늘인 듯, 바다인 듯한 푸른 이미지가 한가득이다. 2008년 시립미술관에서 <퐁피두센터 특별전>이 열렸을 때 나는 이 작품을 실제로 처음 마주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파리의 퐁피두에 가서 이 작품을 보았다. 이 작품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우선 할 말을 잃는다. 작품의 크기가 워낙 커서 걸려있는 공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어서고,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행복한 혼란을 제공해서다. <폴리네시아 하늘>과 <폴리네시아 바다>는 짝꿍을 이루는 작품이다.

야수파의 대표 화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는 1941년 십이지장암 수술을 한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그는 의사에게 진행하던 작품만 마무리할 수 있게 3~4년만 더 살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지만, 캔버스에 유화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937년부터 관절염과 각종 지병이 있었고, 위하수증으로 인해 늘 쇠로 된 벨트를 차고 다녀야 했으며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마티스에게 병마는 큰 장애가 아니었다. 그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맹장염 수술 후 병상에 있을 때였다. 스물한 살의 마티스에게 그의 엄마는 미술도구를 건넸다. 이를 시작으로 마티스는 화가의 길을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조이뮤지엄 대표.  
<그림은 위로다>, <미술에게 말을 걸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건기로 마음먹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색채의 마술사가 되었다. 마티스는 고정적인 색으로 대상을 표현하지 않고 대담한 색채로 '야수 같은 색감'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화풍을 주도했고, 회화 안에 다양한 문양을 끌어들이므로써 회화와 일러스트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1943년 산속에 있는 별장으로 작업실을 옮긴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여행했던 타히티를 떠올렸다. 타히티의 파카라바섬에서 산호초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고, 수영하며 지낸 날들을 기억했고, 내면에 저장돼 있던 추억들이 캔버스에 되살아났다. 그는 태피스트리(Tapestry/여러 가지 색의 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를 위한 도안을 의뢰받자, 하늘과 바다를 주제로 한 이 연작을 시작했다. 이 도안들은 훗날 국립 태피스트리 공장에서 실제 태피스트리로 제작되었다. 그는 종이에 불투명 수채화 물감(과슈)을 칠해 색종이를 만든 후 그 종이들을 오리며 이미지를 창조해 냈다. '컷아웃'이라고 불리는 그의 콜라주 회화는 이렇게 출발했다. 그리고 몸이 회복해 다시 유화를 그리기 전까지 그는 종이 오리기 작업에 매진했다.



앙리 마티스 <모자를 쓴 여인>

“나는 색에 바로 ‘그렸다’...그리기와 칠하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앙리 마티스 <Icarus(Jazz Book 시리즈)>

마티스는 자신의 작업실도 타히티의 바다와 하늘 풍경으로 바꿨다. 지저분한 얼룩을 가리기 위해 시작한 작업으로 그의 공간은 황금빛 햇살이 비친 풍성한 타히티의 자연으로 변했다. 마티스는 자기 작품 중 회화나 조각보다 '종이 오리기'를 통해 더 높은 밀도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작품 <Icarus(Jazz Book 시리즈)>는 마티스의 작품 중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이야기가 소재로 활용되었다. 미노타우로스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가두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미로 속에 갇히게 된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부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깃털을 엮어 날개를 만들어 탈출을 시도한다. 아버지인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조언한다. 너무 높게 날면, 태양에 가까워져 날개가 타버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가까워져 날개가 젖으니 조심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패기 넘치는 아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추락한다. 마티스는 추락하는 이카로스를 자유롭게 하늘에 부유하는 존재로 표현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다 떠나는 이카로스에게서 수술 후 하고 싶은 새로운 작업을 도전한 자기의 모습을 찾은 듯하다. 마티스 말년의 대작들이 이 시기에 태어난다. 마티스의 컷아웃 작품들을 보면 기존의 유화와는 다른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붓과 연필보다 가위로 오리는 형태가 훨씬 감각적이라고 생각했던 마티스가 보여주고자 한 율동감의 미학이다. 🍷

올여름,  
가벼운 보양식  
어때요?

# 전복 샐러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여름은 여름이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덥고, 습해서 기운이 쭉쭉 빠진다. 이럴 때는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보양식, 삼계탕, 장어구이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이름하여 전복 샐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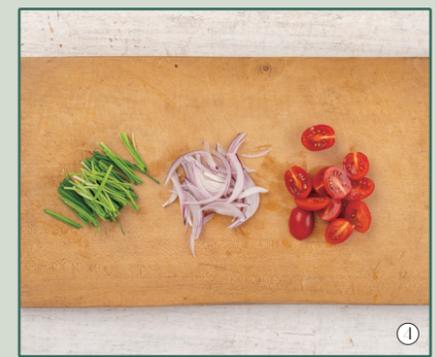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푸드 스타일링 박정윤, 조현영(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및 용량**  
전복 2마리, 적양파 1/4개, 영양부추 한 줌, 방울토마토 5개, 베이비 채소 100g  
**드레싱 재료** 잣 1T, 설탕 1T, 식초 2T, 물 1T, 소금, 후추

### 레시피

- ① 재료를 준비한다.
- ② 전복은 솔로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담가 껍질을 분리해 준다.
- ③ 2의 전복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해 데쳐 얇게 썬다.
- ④ 영양부추는 4cm 정도 길이로 썰고, 적양파는 채를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 썰어 준비한다.
- ⑤ 드레싱에 들어갈 잣은 팬에 한 번 볶아 곱게 으개서 나머지 분량의 재료를 섞는다.
- ⑥ 준비한 야채와 전복을 접시에 올리고 드레싱을 곁들여 완성한다.



### Cooking tip

치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파마산 치즈를 함께 뿌려 보세요. 색다른 전복 샐러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



# 차 타고 가는 신선의 섬에서 여름휴가 \_\_\_\_\_ 군산 선유도

선유도 가는 길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새만금사업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는 다리로 연결됐다. 군산에서 선유도까지 자동차로 여행하는 세상이 됐다. 새롭게 열린 길 따라 선유도에서 여름을 즐겨보자. 허공에서 선유도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집라인, 선유도가 한눈에 보이는 대봉전망대와 장자교 스카이워크 트레킹, 전동차로 섬 한 바퀴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글·사진 진우석 여행작가



대봉전망대에서 본 선유도 전경. 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 등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 선유8경, 고군산군도의 8가지 아름다움

새만금방조제를 달리는 길은 거침이 없다. 고속도로보다 반듯한 길이 바다 위에 직선으로 놓여 있다. 비현실적이라 어리둥절하지만,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맛은 일품이다.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비응도에서 약 10km쯤 가면 야미도가 나오고, 다시 신시도와 무녀도를 징검다리처럼 건너면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의 대표 섬인 선유도에 닿는다.

고군산군도는 유인도 16개와 무인도 47개로 이뤄진 섬의 무리다. 고군산은 옛 군산이란 말이다.

선유도의 최고 명소는 선유도해수욕장이다. 선유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선유8경 중 3개가 선유도해수욕장에 해당한다. 선유도해수욕장에서 감상하는 노을인 선유낙조, 고운 모래가 깔린 모습인 명사십리, 마치 기러기가 내려앉은 것 같은 백사장 모습인 평사낙안(平沙落雁)이다. 그밖에 선유8경으로 망주봉에 걸린 폭포를 일컫는 망주폭포, 세 척 돛배가 귀향하는 모습인 삼도귀범, 장자도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들의 불빛인 장자어화, 신시도 월영봉의 가을 풍경인 월영단풍, 선유도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섬의 풍경인 무산십이봉 등이 있다.

### 트레킹, 대봉전망대와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해수욕장에 뛰어들기 전에 트레킹과 레포츠를 즐겨보자.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다리다. 길이는 약 268m로 무지개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린다. 도보 전용이라 차량은 들어올 수 없다. 섬과 섬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장자교는 바닥을 통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어 아찔하다. 다리 중간에 서자 세찬 바람이 머리칼을 휘날린다. 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이 보이고, 반대편으로 펼쳐진 장자도의 대장봉은 무서운 장수가 버티고 선 느낌이다. 장자도의 대장봉에 오



1

르면 시원한 조망이 열리지만, 이보다 선유도의 대봉전망대를 추천한다.

장자교를 건너와 선유도해수욕장을 지나 선유3구 마을 앞에 닿았다. 군산구불길 이정표를 따라 호젓한 산길을 20분쯤 오르면 대봉 정상에 닿는다. 대봉전망대는 정상 아래에 있다. 전망대에 서자 탄성이 터져 나온다. 드넓은 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이다.

전망대에서 선유8경의 여러 절경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선유도해수욕장에 고운 모래가 깔린 명사십리, 마치 거대한 기러기가 내려앉은 것 같은 평사낙안, 망주봉 두 봉우리 사이에서 비가 많이 올 때 흘러내렸던 망주폭포 흔적도 보인다. 멀리 여러 섬이 떠 있는 모습은 '무산십이봉'이라 할 만하다.

#### 액티비티, 선유도 집라인과 전동차

선유도해수욕장은 다른 곳과 달리 서핑, 카약, 수상스키 등이 없다. 대신 짜릿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다. 해수욕장 왼쪽에 자리한 거대한 탑이 집라인 타워다. 1층에서 벨트와 헬멧 등 안

전 장비를 착용하고 타워에 올랐다. 타워의 높이는 약 45m, 아파트 11층에 해당한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출발대에 서자 선유도해수욕장의 수려한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출발! 구령과 함께 출발대 문이 열리자 엄청난 속도로 와이어

#### 선유도 ECO TIP



####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 조개잡이

선유도해수욕장은 모래가 깔렸지만, 반대편은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다.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조개잡이를 하면, 선유도의 놀라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모래와 섞여 있는 갯벌이라 걷는 데 큰 불편이 없고, 갯벌을 조금만 파헤쳐도 다양한 조개를 잡을 수 있다. 문의 063-464-5556

를 타고 내려간다. 이때가 가장 짜릿하다. 잠깐 정신이 어질다가 점점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백사장에서 노는 사람들 위를 날아가는 맛이 일품이고, 왼쪽으로 푸른 바다가 넘실거린다. 속도가 점점 줄더니 어느새 도착지가 가까워진다. 거리는 약 700m인데 순식간에 도착했다. 아쉬워 입맛을 다신다. 짧은 집라인의 아쉬움은 전동차로 날려버릴 수 있다. 선유도는 여러 대여점에서 다양한 전동차를 빌려준다. 전동차는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형태인 3발 전동차를 추천한다. 전동차를 타면 차가 못 들어가는 섬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망주봉 앞에서 우회전해 선유3구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로 가면, 선유도 방파제에 자리한 빨간색 기도등대를 만날 수 있다. 손바닥을 합장한 것처럼 생긴 기도등대는 어민들의 안전과 만선을 바라는 것이다.

#### 선유낙조, 선유도해수욕장의 노을

전동차까지 즐겼으면 이제는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맘을 씻어낼 차례다. 깨끗하고 고운 모래가 깔린 해변은 거대한 운동장 같다. 광재구 시인은 여기서 '가장 맑고 넓은 원고지'를 떠올리면서 <선유도>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해변에서 바다로 갈수록 모래에서 갯벌로 바뀐다. 시나브로 뜨거웠던 대지는 식으면서 노을이 내려앉는다. 선유8경 중 하나인 선유낙조의 시간이다. 🌅



#### 선유도 여행 가이드

선유도 아름다움의 핵심은 선유도해수욕장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대봉전망대와 장자도 스카이워크 등의 트레킹, 집라인과 전동차 등의 레포츠를 다양하게 즐기며 더위를 날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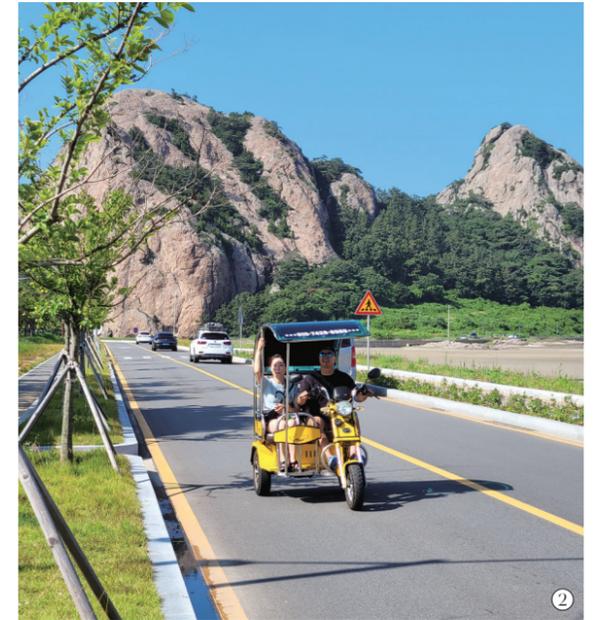
#### 교통

자가용은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선유도로 간다. 대중교통은 군산대정문에서 92번 시내버스가 1시간에 1대 정도 다니며 40분쯤 걸린다.



#### 맛집과 숙소

군산의 별미는 박대다. 박대는 참새대와 생선으로 말려서 구워 먹는 걸 최고로 친다. 선유도는 남도밥상, 군산 시내는 일력생선이 박대구이 정식을 잘한다. 활어회는 선유도어촌계수산물센터의 고래포차가 푸짐하다. 숙소는 선유도리조트가 깨끗하고, 장자도에 많은 펜션이 있다.



2

- 1 망주봉이 보이는 선유도해수욕장의 해안 산책로
- 2 전동차를 즐기는 사람들. 선유도는 전동차로 섬 구석구석 둘러보기 좋다.
- 3 선유3구에 자리한 기도등대. 어민들의 안전과 만선의 영원을 담았다.
- 4 선유도해수욕장의 서정적인 노을. 선유낙조는 선유8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



3



1

#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 문어에게서 배운 인생의 교훈

야생 동물과의 교감은 쉽지 않다. 그 대상이 바닷속 바위틈에 웅크리고 있는 문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묵묵한 기다림 끝에 문어의 유연한 다리가 손에 닿은 그 순간,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의 주인공 크레이그 포스터의 이야기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사진 넷플릭스 <나의 문어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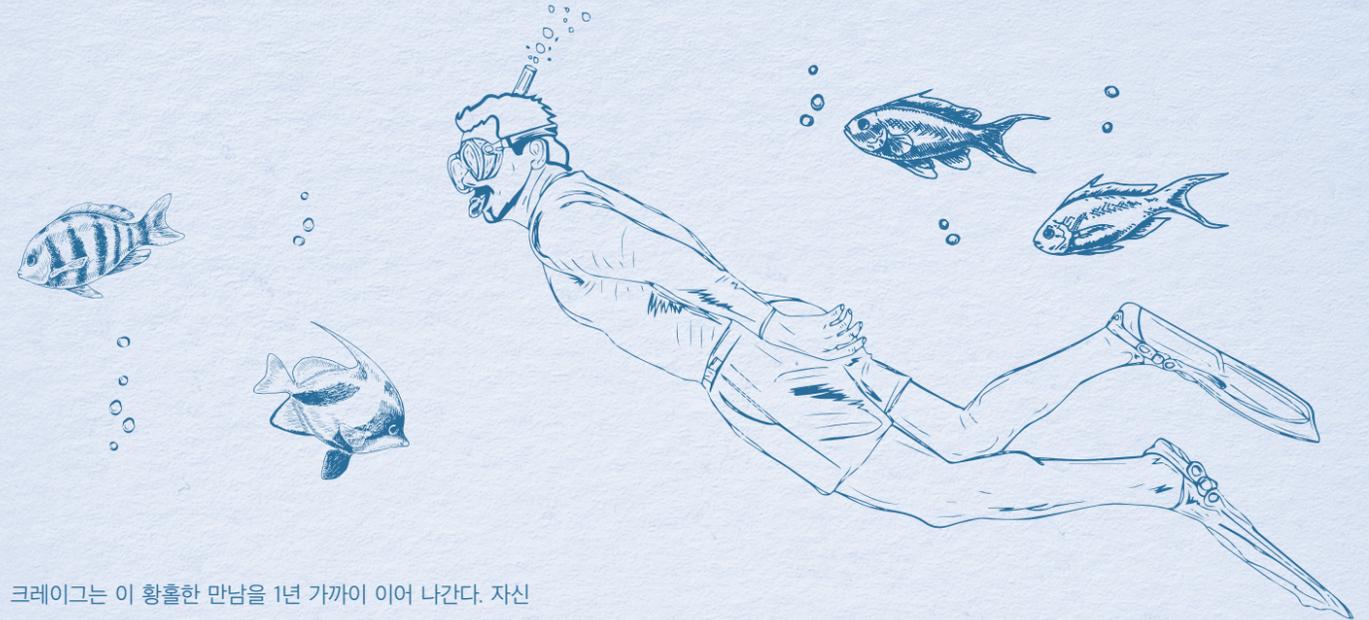


###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유연한' 스승

2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무대로 다큐멘터를 촬영해 온 크레이그 포스터는 한순간 자신을 덮친 거대한 번아웃과 슬럼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토록 좋아하며 파고들던 영상 촬영과 편집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예전 같은 힘찬 일상과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도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어릴 적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던 대서양 앞바다로 나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신비로운 대자연은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이로운 광경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몇 날 며칠 바닷속을 드나들던 중 조개껍질로 둘러싸인 동그런 물체가 카메라에 잡혔다. 정체가 궁금해 잠시 관찰하던 찰나, 물체 안에서 문어 한 마리가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천적을 피하기 위한 문어의 은신술이었던 것. 크레이그 포스터와 문어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크레이그는 묘한 끌림을 에너지 삼아 매일 같이 문어의 활동 영역을 찾았다. 26일째 되던 날,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문어가 조심스레 그에게 손을 뻗자 크레이그도 기꺼이 문어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켈란젤로의 명화 <천지창조>가 절로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바로 이때부터 사람과 야생 문어의 보기 드문 교감이 시작됐으니, 크레이그와 문어, 시청자들에게 이 순간은 그야말로 천지창조의 순간과 다를 없었다.



크레이그는 이 황홀한 만남을 1년 가까이 이어 나간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놀라 도망간 문어를 찾기 위해 문어에 대해 공부한 뒤 마침내 다시 찾아내는가 하면, 밤 수영을 감행하며 사냥 모습을 포착한다. 상어와의 혈투 끝에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문어가 새 팔을 돋우며 삶을 이어 나가는 모습에서 고비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 상어의 2차 습격을 받던 중 상어의 등에 올라타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는 문어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름조차 붙이지 않은 이 '암컷 문어'는 어느새 크레이그의 인생 스승으로 거듭나 있었다.

### 문어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 공존과 상생

문어와의 만남은 크레이그에게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어를 중심으로 한 해초 숲의 생태계에 대해 탐구하며 마주친 수많은 야생동물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새삼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깨달은 것. 그럴수록 문어에 대한 애정과 감정이입이 강해졌지만, 크레이그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암컷 문어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문어를 만난 지 324일째 되던 날, 크레이그는 암컷 문어의 은신처에 또 한 마리의 문어가 있는 모습을 포착한다. 함께 후대를 이을 짝을 찾은 것. 좀처럼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크레이그는 문득 두려워졌다. 문어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문어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알을 품었고, 덕분에 수만 마리의 새끼가 무사히 태어나 바다 각지로 흩어진다.

암컷 문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간도 자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된 크레이그는 이후 잠수부 단체 'Sea Change Project'를 공동 설립, 문어와 함께 유명한 해초 숲 보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 기력을 소진한 문어가 해류에 떠밀려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물고기들이 문어의 살점을 하나둘 떼어 먹었고, 마침내 상어가 나타나 문어를 물고 사라졌다. 크레이그는 눈물을 쏟는 와중에도 희박한 확률을 높고 생애 주기를 완성한 암컷 문어에게 경의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몇 개월 뒤, 마치 인사라도 하듯 바다 수영을 즐기는 그와 아들에게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문어 새끼가 찾아온다. 암컷 문어가 남긴 새로운 삶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암컷 문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간도 자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된 크레이그는 이후 잠수부 단체 'Sea Change Project'를 공동 설립, 문어와 함께 유명한 해초 숲 보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크레이그의, 아니, 우리 모두의 문어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듯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상생에 힘을 보태고 있다. 🍊

# 물 만나 좋은 날

재무처 자금IR부 이소연 대리&안미나 대리

모처럼 날씨가 좋다. 게다가 옆에는 든든하고 편한 동료가 있고,  
시원한 강바람과 잔잔하게 빛나는 노을은 '불금'의 분위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려 준다.  
이소연, 안미나 대리가 패들보드 위에서 보낸 시간이 꽤 흥미롭게 흘러간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 볼금에 패들보드라니!

직장인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리는 날, 바로 금요일! 편안한 차림을 한 이소연, 안미나 대리가 한강에 도착했다.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 금요일 하루를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차고,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들이 선택한 건 바로 패들보드!

“제가 올해 3월 자금IR부로 발령받았어요. 소연 대리님이 옆자리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답니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취미도 비슷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미나 대리는 평소 활동적이고, 물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사수 이소연 대리의 즐거운 제안에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웃어 보였다.

즐거운 건 이소연 대리도 마찬가지. “함께하자고 한 입장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 뿌듯하네요. 재미있게 놀다 가겠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의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강사의 패들보드 안전 강의를 듣는 두 사람. 패들보드 유경험자인 이소연 대리는 꽤 차분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는 반면, 패들보드가 처음인 안미나 대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빠지기도 하나요? 빠지면 어떡하죠?”라고 묻는 안미나 대리에게 강사가 한마디 던진다. “빠지면 더 재밌을 거예요.” 강사의 말에 안미나 대리는 “저, 수영 잘해요!”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 #패들보드 #노을 #환상적

패들보드는 길고 좁은 형태의 물에 뜨는 보드로, 물에서 사람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중심을 잘 잡고 패들을 잘 저어주는 게 관건이다. 두 사람이 체험하는 패들보드는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패들을 젓는 ‘스탠드업 패들보드’다. 언뜻 카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직접 체험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다고. 안전 교육을 받은 두 사람이 드디어 보드를 들고 실전에 돌입했다. 이소연 대리는 곧잘 노를 저어 나아가는 반면, 안미나 대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한자리에서 맴돌았다. “으악, 알려

“회사가 아닌 색다른 장소에서 만나 함께하니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프리다이빙에 도전해 보고 싶네요.”

이소연 대리

주신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당황한 듯한 안미나 대리의 한마디에 이소연 대리는 힘차게 나아가다가 잠시 멈춰 기다린다.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봐.” 이소연 대리의 응원에 이제 감을 잡았는지 안미나 대리의 보드가 천천히 이소연 대리를 향해 나아갔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일몰이 지는 한강의 한가운데. “예전에도 날씨가 좋은 날, 패들보드 체험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노을이 질 무렵이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기억에 오래 남아서, 꼭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이소연 대리가 노을이 지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말했다.

### 노는 물이 달랐던 하루 끝

서서히 지는 해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바로 일어서기. ‘스탠드업 패들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어서서 패들을 저어야 비로소 패들보드를 제대로 즐겼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미나 대리는 무서움을 잊고자 “여기서 제가 빠지면 재밌겠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물놀이 하러 가요~!”

안미나 대리

죠?”라며 강사에게 농담을 건넸다. 곧잘 하던 이소연 대리도 일어서는 건 조금 망설여지는지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을까. “우와! 일어서었어요!” 드디어 일어서기에 성공한 두 사람. 그렇게 서서 패들을 젓다가 이내 여유가 생겼는지 늑기까지 성공! 우려했던 입수도 하지 않고, 난도 있는 동작을 척척 해내며 제대로 물 만난 모습을 보였다.

“서서 패들을 젓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날씨도 맑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소연 대리의 말에 안미나 대리도 보탠다. “맞아요. 젓는 게 힘들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한강에서 패들보드로 타고, 예쁜 노을도 보고 좋았습니다. 소연 대리님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네요!” 늘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이 조금 지겹다면, 신선한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 거창한 것도 필요 없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을 함께해 줄 마음 맞는 친구! 거르면 평범했던 일상도 조금 특별해질 것이다. 이소연 대리 and 안미나 대리가 함께한 이 시간처럼. 🍷



오래된 모래가 새 주인을 만나고, 사이좋은 부녀의 손끝에서 새 모래성이 피어난다.  
 어릴 적 묻어 두었던 시간을 오랜만에 마주한 바닷가에서 고민성 과장이 새 추억을 새겨넣었다.  
 계절의 흐름을 믿는 것처럼 여행의 생명력을 믿는다.  
 하나의 우주와도 같은 바다 안에는 온 힘을 다해 스스로 개화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 다시 여기 바닷가에서

수원사업소 고민성 과장 가족

### 도닥도닥, 새 추억을 쌓다

고민성 과장에게 강화도는 추억이 담백 서린 장소다. “부모님의 고향이어서 어릴 땐 매년 여기로 명절을 쇠러 왔어요. 최근에는 아이들도 어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못 왔는데, 오랜만에 다시 찾은 강화도에서 딸들에게 바다도 보여주고 근처 어시장에 가 물고기도 구경할 계획입니다.”  
 고민성 과장 가족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 ‘다 함께’다. “항상 온 가족이 같이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집 앞 마트에 갈 때도, 첫째 어린이집 등·하원도 가능하면 넷이 다 함께 갔다 와요. 그러다 보니 이서는 아빠랑 둘이 외출하기로 한 날도 당연히 엄마랑 이제도 같이 가는 줄 알고 문 앞에서 마냥 기다리곤 하죠.”  
 별이 좋은 날이든 구름이 좋은 날이든, 언제 떠나도 좋고 함께 할수록 힘이 나는 가족여행은 늘 ‘지금’이 적기다.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키즈펜션은 요즘 한창 소꿉장난에 폭 빠진 이서를 위한 최적의 숙소였다. 주방놀이 장난감을 비롯해 유아 전용 소독기, 식기류, 목욕용품이 완비돼 있어 아이와 부모 모두를 만족시켰다. 온수가 가득 채워진 전용 스파 시설도 생각보다 크고 깊어 이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보! 어찌다 보니 참 오랜만의 여행이네.  
 내 삶을 행복으로 채워줘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사랑해!”  
 아내 이유리 씨



호기심 많고 개구쟁이인 이서는 소문난 '아빠 바라기'다. 최근 킷보드 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아빠를 감동시키고, 말이 부쩍 늘어 자기 생각을 똑 부러지게 표현하곤 한다. 여행 중 좋았던 곳이 있으면 꼭 "아빠, 여기 재미있어. 또 오자!"는 말로 고민성 과장의 여행 의욕을 북돋운다. 이서와 두 살 터울인 이재는 올해 세상에 나온 사랑둥이! 잘 웃고 잘 자는 최고의 효도로 매일 부모를 웃게 하는 이재는 얼마 전 뒤집기 성공에 이어 이유식도 시작했다. 평균 이상의 체중을 자랑하며 쑥쑥 성장 중인 막내는 이번 여행에서도 방실방실 웃으며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 비가 와도 좋아! 우리가 함께라면

숙소에서 나와 길만 건너면 바로 동막해수욕장이다. 마침 썰물 때라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 이서가 주저 없이 앉아 모래놀이 도구를 펼쳐놓았다. 썰물 때면 무려 1,800만 평 규모, 직선 거리 4km의 갯벌이 펼쳐지는 동막해수욕장은 세계 4대 갯벌

**“이서야, 이제야! 아빠 어릴 적 뛰어놀던 바닷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내 삶의 위안이고 가장 큰 선물인 너희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동안 아빠도 늘 함께할게!”**

#### 고민성 과장

중 하나다. 광활한 갯벌 위로 부유하는 바닷바람에서 유년 시절 말았던 익숙한 냄새가 나는 듯하다. 아가부터 주위를 맴도는 갈매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이서가 “안녕?”, “안녕~” 자꾸만 배꼽인사를 건네는 덕에 또 한 차례 웃음꽃이 피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 가까이 다가가기 주저하던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바닷새의 선한 눈망울에 매료된 눈치다. 난생처음 보는 모든 생명들에 푹 빠진 딸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내 이유리 씨도 연신 싱글벙글이다. “아내와는 이전 직장에서 만나 6년 연애 끝인 2020년에 결혼했어

#### 강화의 또 다른 매력 즐기기



©인천관광공사

#### 교동대룡리시장

강화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교동도에는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몰려들며 조성된 교동대룡리시장이 있다. 이발관, 미장원, 전파사 등 옛 생활상이 잔뜩 남아 있어 레트로 여행에 제격이다. 호떡과 다방 생화차부터 크리스피 감자칩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8월 말부터는 드넓은 해바라기밭이 장관을 이룬다.

주소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35



©인천관광공사

#### 옥도끼우주센터

달에 사는 토끼가 옥방아 짙는 모습을 담았다고 해 '옥도끼우주센터'다. NASA의 아폴로 프로젝트에 사용됐던 가위, 우주인 무중력 헤드셋 등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품! '코스모프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과 달 착륙선을 관람할 수도 있고, 실제 우주에서 로켓을 타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중력 저항을 체험해볼 수도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주소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요. 한낱 입사 후 제가 용기 내어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이어갔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두 딸 육아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이번 여행이 비타민 같은 충전제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한 뼉 미래성을 사이에 두고 가족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서가 미래성을 쌓으며 하루치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다. 걸음마를 떼고 킷보드도 탈 줄 알게 된 아이가 아장아장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나간 시간이 또 이렇게 쌓인다.

#### 아이야, 바다에서 놀자!

“이서야! 저기 줄 맞춰 움직이는 게 뭐지?” 멀리까만 점들이 보여 다가가 보니 작은 게들이 나란히 옆으로 걷고 있다. 행어나 밭지 않도록 조심조심 까치발을 들고 걷는 부녀의 모습을 아내 이유리 씨가 열심히 카메라에 담는다. 썰물로 모습을 드러낸 갯벌의 흙을 떠내니 구멍 속에서 바닷물이 뽀글뽀글 올라온다. 숨죽여 기다리자 반짝이는 조개껍데기 사이로 작은 조개가 쑥 얼굴을 내밀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난 이서는 온종일 아빠가 어린 시절 그랬듯 키를 훌쩍 넘는 갯바위 위로, 철썩이며 밀려드는 파도 앞으로 마냥 신이 나서 뛰어들었다. 늘 새롭고 재미난 것들을 찾아 나서는 딸 곁에서 고민성 과장도 분주하다. 별것도 아닌 일에도 숨이 넘어가도록 웃는 아이를 바라보며 불현듯 꼭 찬 행복이 느껴진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닥이며 걷는 길. 한여름, 모래로 촉매를 들던 시간이 저물어가는 동안 고민성 과장의 얼굴에 담기는 웃음은 점점 더 무르익어 갔다. 🍓



#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듣는 서점은 한남 직원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따뜻:한남> 웹진에서 김수현 대리가 읽어주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처  
경영개선부  
김수현 대리

Audio

Book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제목부터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라니!  
이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임에도 그 안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한두 장 넘기다 보면 재기 넘치는 문장에 어느덧 스며들게 되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를 소개합니다.

글·녹음 김수현 대리 사진 정우철

전이나 미역의 시점 레포 노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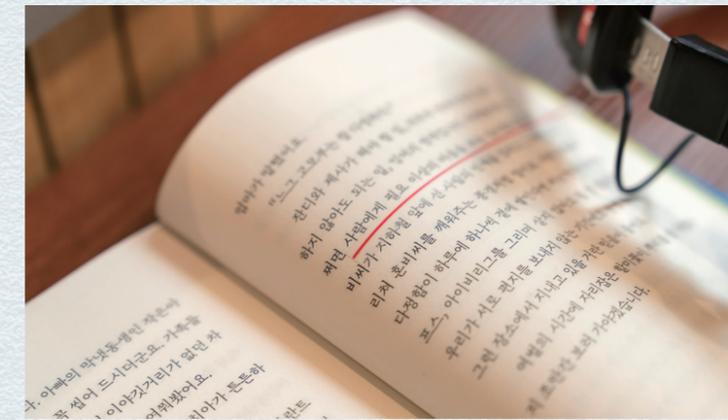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많은 일하는 사람들처럼 저 역시 번아웃으로 짐작되는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아요. 짐작이라 말하는 건 그때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뭔지 당시에는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들은 한창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진행 중이라는 게 보이지 않다가 지나가고 나서야 그 시간이 뭘였는지, 그때 내가 어땠는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언젠가는 한동안 쉴 동안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욕조 안에 가만히 앉은 채로 샤워를 하곤 했어요. 기운이 더 떨어질 때는 물을 맞으면서 아예 누워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젖은 미역같이 널브러져 있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욕조 밖으로 나와 몸을 닦고 말릴 기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한두 달 뒤인가, 샤워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제야 깨달았죠. 아, 그때 내가 좀 이상했구나. 사람이 아닌 미역이었구나. 고갈된 것이 체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집중력이거나 하여간 바닥을 드러낸 채로 꾸역꾸역 계속하고 있었구나. 저 같은 사람들은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하곤 합니다. 70p 중에서



## Book Comment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느껴졌는데요. 작가의 말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라 꺾이지 않는 몸 아닐까요? 이 책과 함께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프스의 할미꽃 두 뿌리

마대에 든 잔디를 다 꺼내서 덮었을 때,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흙더미가 옆에 남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고모부가 아빠 무덤가에 심겠다고 할미꽃 두 뿌리를 파서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요즘은 할미꽃이 귀해졌는데, 꽃을 피우면 참 예쁘거든.”  
이날 새벽부터 돼지고기를 삶고 술과 과일을 챙겨온 엄마가 말했어요. “느그 고모부는 참 다정하다.”  
잔디와 제사가 해야 할 일, 의무의 영역이라면 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잉여의 영역입니다. 다정함이란 어쩌면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마음을 쓰는 일이겠지요. 혼비씨가 지하철 앞에 선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분이 소리쳐 혼비씨를 깨워주는 풍경처럼 말이죠. 이런 종류의 다정함이 하루에 하나씩 곁에 쌓인다면 저는 천국이나 알프스, 아이비리그를 그리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97p 중에서





## 김해사업소&김해지역자활센터 자원 순환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이로운 상생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와 김해시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탄소중립 실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이롭고 값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공감'을 바탕으로 '상생'을 실현하는 이들을 만났다.  
글 김주희 사진 정우철



다회용기 국&밥 용기 납품량  
(2023년 7월 누적 수량, 접시 및 수저 등 제외)  
**226,370**개

아이스팩 수거량  
**26,925**kg

아이스팩 납품량  
**23,913**kg

다회용 컵 납품량  
**8,500**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5**명



왼쪽부터 김해사업소 운영부 김도연 대리, 고객지원부 정혜인 대리

“김해사업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꾸준한 관심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고용을 더욱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해지역자활센터 이동하 팀장

**자원 재사용 사업으로 순환 경제 실현**

지난 2021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와 김해시는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힘을 모으고 있다. 김해사업소는 김해시 그리고 김해지역자활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스팩·다회용기 재사용 사업단’ 지원 활동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는 지난해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구축했다. 김해사업소는 아이스팩·다회용기 재사용 사업단의 차량, 세척사업 물품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비롯해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객지원부 정혜인 대리는 김해시와의 협력이 ‘공감’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김해사업소는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교류합니다. 특히 김해시의 탄소 저감 정책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자원 순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인근 학교 대상 교육지원사업, 김해사업소 시설을 활용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김해시 다회용기 세척시설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수거한 아이스팩과 다회용기를 세척, 살균하고 이를 다시 포장해 장례식장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곳의 운영을 도맡은 김해지역자활센터는 근로자 관리, 수거 및 공급 관리,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해지역자활센터 이동하 팀장은 시설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5곳에 다회용기를 납품 중인데, 장례식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접시 대신 스테인리스 용기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아이스팩을 세척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데요. 매년 아이스팩을 구입해야 했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왼쪽부터 세척시설 김선자 반장, 김해지역자활센터 이동하 팀장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다**

세척시설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세척과 소독 과정에서 다수의 단계를 거치고, 진공 포장으로 위생을 더욱 강화했다.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역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78만 개를, 소상공인에게 아이스팩 월평균 3,300개를 공급했다. 아이스팩 폐기처리, 분리배출 등을 비롯해 상인들의 아이스팩 구입비용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중이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63t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탄소 174t을 절감했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2만 6천 그루를 심은 효과에 이른다.

아이스팩·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단순히 자원 순환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취약계층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현재 세척시설에는 15명이 근무 중이다. 김선자 반장은 초기부터 함께한 근로자 중 한 명이다.

“용기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섬세하게 세척과 소독 작업을 이어갑니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미한 활동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사업단은 2023~2024년에 걸쳐 공급처를 더욱 늘리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현재 5개의 장례식장에서 관내 전체 장례식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11개 초중고와의 협약을 통해 체육대회, 동창회, 시 관련 행사 등에 다회용기를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통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지역주민 사이에서 친환경 문화가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해사업소 운영부 김도연 대리 또한 “앞으로도 김해시와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발굴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명절 저소득층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라며 상생 의지를 확고히 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실현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김해사업소와 김해시는 환경문제 해결과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 협력이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김해지역자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상생 기반의 협력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갈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01

###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2023 ENERGY HERO RACE**

참가비는 수해지역 등 에너지취약가구에 고품질 LED 기기교체 등 사업 용도로 기부됩니다

히어로 레이스 접수 바로가기

대회일시: 9월 16일(토) / 오전 9시 출발  
 대회장소: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참가부분: 10km, 5km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herorace.kr  
 참가비: 4만 원  
 참가기념품: 노스페이스 티셔츠 외 5종  
 주최·주관: 굿피플  
 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No Brand, 서울특별시, 국민일보, kiko, LG생활건강, 동국빌, HOPE

## 02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파크콘서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파크콘서트 PARK CONCERT**

2023. 8. 19 - 10. 7 매주 토요일 7PM (주최연주 공연 포함)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8.19 거미 & 에일리	9.9 이자람 인 콘서트 - 소리
8.26 라포엠	9.16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금난새
9.2 뮤지컬 갈라 콘서트 정선아, 서경수, 진태화, 양서운	9.23 코리안 드림 - 영고 III
	10.7 잔니버

\*시기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31.793.8000 주최·주관: 성남문화재단 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 01

### 한남 대구 열병합발전소, LNG 연료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 열병합발전소가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대구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을 예정인 대구 열병합발전소는 1997년 준공 이후 대구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내 약 11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전력계통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태양광, 매립가스(LFG), 우드칩과 같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연료로 활용해 대구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2014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연료를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2년 3월부터 건설을 시작해 2024년 4월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 설비에 비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이용 효율이 약 30.8% 높으며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 물질 약 46.1%,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2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개체로 대구시는 전력 자립도가 18.2%에서 29.2%로 약 11% 상승하고 비상시 안정적인 유연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02

###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공동 신인권경영 선포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20일 정용기 사장과 이홍성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으로 신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서명한 신인권경영헌장에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기업인 한남의 핵심 가치가 포함됐다.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등에 의한 차별에 대한 금지,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의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등도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정용기 사장은 "인권경영 선포를 계기로 기관 내 인권경영의 전파 및 확산을 통해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고, 윤리경영 선도 공기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 5+6월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 조\*민 님

'반가운 만남' 코너에서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편을 반갑게 읽었습니다. 나무와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이번 기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나무야말로 삶을 같이하는 친구이자 동반자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 초록빛 세상을 위해 나무와 늘 함께하고 싶어요.

### 김\*진 님

5+6월호 역시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엮여져 있어 단숨에 읽었습니다. 특히 '테마 에세이'의 '소중함이 전하는 행복'을 읽으며 지친 마음, 힐링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소소하지만 하찮지 않은 제 주변의 모든 것들에 좀 더 애정을 갖으려고요.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대해야 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 황\*연 님

정보기획부의 소개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공개와 확대 등 대국민 빅데이터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혁신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잘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 이\*숙 님

'콘텐츠 in 에너지'에 소개된 콜린 베번 가족이 뉴욕 한복판에서 실천한 자발적 원시생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대도시에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한 채 1년간 살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일상 속 환경 보호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난의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처럼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에 저도 적극 동참하려고요.

### 독자와 함께하는 <따뜻:한난> 이벤트

event ①

**생각 보태기**  
'더불어 산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웹진을 통해 생각을 적어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1만 원

**특목 앙케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웹진을 통해 답변을 적어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②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웹진에 '수박 탈 쓴 따소미'가 숨어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③

**<따뜻:한난>보고 의견 남기기**  
좋았던 기사,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따뜻:한난>을 읽고 의견 남겨주세요.



모든 이벤트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을 검색해 주세요.

## 한난 SNS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더위로 지치는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가서 SNS를 즐겨봅시다.  
무얼 할지, 무얼 볼지 고민된다면, 한난 SNS 어떠세요?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답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행복 일터!  
푸르메  
여주팍을 가다



YouTube

www.youtube.com/kdhcmedia



지열, 태양열, 하이브리드 전지를 결합한 신재생 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팍, 푸르메 여주팍을 아시나요? 꿈드림기자단이 그곳에서 일하는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몰래 지령 받고 미션을 수행하는 X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영상 보러 오세요!

에너지 효율을  
올려주는  
제품 알아보기!



NAVER blog

blog.naver.com/kdhc2017



장마로 인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내가 너무 습하거나 더워지면 전기세도 그만큼 증가하는데요. 날도 덥고, 습한데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자 한난 블로그에서 에너지 효율을 올려주는 제품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난에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facebook

www.facebook.com/FKDHC



남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한난의 본사(분당, 판교)와 각 지사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냉방 온도는 26°C 이상으로, 난방 온도는 17°C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은 부분 소등하죠. 더불어 개인 냉난방기 및 스탠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장식 조명은 심야 시간에 소등하고요!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Instagram

www.instagram.com/kdhc\_on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공휴일에서 제외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헌절은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한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세요~! 🇰🇷